

Miles Davis의 ‘Blue In Green’ 녹음에 나타난 재즈의 예술성

김현중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bonzurm@yahoo.com

The artisry of jazz revealed in Miles Davis’ recording of ‘Blue In Green’

Hyounjong Kim

Dept. of Popular Music,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재즈라는 음악 스타일에 있어서 즉흥연주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물론 그 이전의 음악에서도 즉흥적인 연주는 존재했었지만 재즈만큼 그것을 강조하는 음악스타일은 없기 때문이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반 “Kind Of Blue” 에 수록된 ‘Blue In Green’은 첫째, 재즈에 있어서 즉흥적인 연주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녹음은 연주자 각자의 자유로운 감정표현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성을 고려한 집단적인 즉흥연주형태로 멤버들 간의 도움과 협력이 최상의 결정체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이 녹음은 하이데거가 주장한 “예술은 본질적으로 시짓기이며 이것은 기투적”이라는 맥락에 부합하는 연주라는 점이다. 재즈의 즉흥연주는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르게 작곡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동시 작곡’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하는데, 단순히 자신의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재즈의 즉흥연주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이 녹음은 재즈이기 이전에 음악이라는 존재의 본질에 부합하기에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존재자의 존재가 드러나 진리를 도래하게 하는 예술작품이다.